

KOSPI 5,084.85 KOSDAQ 1,082.59

▲ 투자·창업 환경 정비하고 ‘6000피’ 도약 3차 상법개정으로 ‘韓 엔비디아’ 키운다

코스피 5000시대

④ 제도·구조의 변화

27일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오천피’(5084.85)를 찍었다. 5000에 안착한 코스피가 ‘6000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 전문가들은 이미 고령화 단계에 들어선 한국의 산업구조상 실적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산업 육성으로 활기를 불어넣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이 신나게 투자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 경쟁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는 것, 혁신을 가로막는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것, 이런 경제의 기본을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3차 상법개정 등 지속적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거래소, 코스닥 상장 지원 위해
산업별 특성 반영한 맞춤형 심사

까다로운 기술특례상장 인식 여전
창업가, ‘자금 확보’ 가장 큰 난관

대기업은 노란봉투법·배임죄 등 우려

◆ 기업 투자 늘릴 당근, 코스피 6000 초석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 3개만 있다면 ‘코스피 7000’도 거뜬할 것이라 하지만 시장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않다”며 “증시 부양의 근간이 기업 실적이라는 점에서 스타트업과 벤처의 생태계를 키워 산업 구조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판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2023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59.1%를 차지하는 490만2489개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이 중 기술 기반 업종의 창업기업은 97만8847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20.0%였다. 반면, 창업기업 매출은 전체 중소기업 매출의 34.4%를 차지하는 113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인공지능(AI), 우주 등 국가 핵심기술 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 기준을 도입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높은 벽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과세 리스크 시나리오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불소급 원칙* 적용)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의무	상법적용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의무
과거 취득분도 자본거래 인정	세법적용	과거 취득분 자본거래 불인정
과세이연분 비과세 전환 가능성	가법인 영향	과세이연 특례 상실 및 법인세 부과
세금부담 없음	재무적 결과	법인세 즉시 납부

*불소급 원칙: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령의 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
자료/대선증권 리서치센터

능(AI) 등의 등장으로 창업 아이템이 무궁무진해졌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기술특례상장(재무 상태 좋지 않아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만으로 주식 상장)은 그림의 떡과 같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선뜻 나서는 모험자본이나 창업자들을 찾기 쉽지 않다”라며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스타트업도 다음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창업 준비 과정에서 창업가들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자금 확보 어려움’(53.7%)을 지적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45.9%)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36.7%)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이라고 다르지 않다.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등에 발목에 잡힐까 두려워한다.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로 코스피 5000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른 현대자동차 사례가 단적인 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22일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며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전환 배치 등 경영상 결정에 노조 동의를 강제한 노란봉투법 보완 등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아틀라스 시대”에 걸맞은 노사 상생 문화와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입법을 제때 실행하지 못하면 AI 패권 경쟁에서 영영 낙오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배임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는 지난해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배임죄는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폐지 논의는 진전이 없다.

◆ 3차상법개정안, 기업과 시장 모두 살릴 해법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며 중복상장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위원들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중복상장 방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것으로, 기업 상속을 앞둔 대주주의 비정상적 주식 저평가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3차 상법개정이나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증시에 독일까 약일까.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지난해 4월 새정부에 7가지의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제안했는데, 아직 (소액주주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회사 상장의 원칙 금지와 예외시 모회사 주주 보호, 상장 계열사 간 합병 때 공정가치로 평가, 모든 상장사에 밸류업계획 발표 및 실천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제 투자자들은 지난 30년간 한국 정부 및 기업에 속아왔다는 불신의 벽이 매우 높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강력히 지속해서 한

국이 투자자 보호가 되는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3차 상법개정은 ‘발행주식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10년간 코스피 상장기업의 합계 주식 수가 연평균 약 2%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연평균 10.5% 성장해,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이 순이익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 3차 상법개정 추진 공감대
주가 누르기·중복상장 방지 논의

韓, 투자자 보호 인식 심어줘야
제도 변화로 ROE 개선 등 유도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무력화”

그래서 많은 기업이 주주환원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고 있다. 미국의 애플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체 주식 수의 약 39%에 달하는 100억주 이상을 매입해 소각했다. 이 기간 애플의 주가는 약 10배 이상 상승했고, EPS는 연평균 15.7% 성장했다.

반면, 기업들은 “정치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8단체는 합리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kova@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실적발표 앞두고 80만원 찍었다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80만원을 찍었다. 삼성전자는 ‘16만전자’(주가 16만원)에 바짝 다가섰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일대비 8.70% 오른 80만 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4.87% 상승한 15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공개를 앞두고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은행 씨티그룹은 이날 SK하이닉스 목표가를 1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씨티그룹은 “선주문이 밀려들며 고객사들은 1년 전부터 계약을 체결해야 해 공급자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실적 가시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 D램과 낸드 평균 판매 가격이 각각 전년 대비 120%와 90%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 이익이 15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도 장밋빛 기대감이 커졌다. 이날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30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한 수치다. 2분기 영업이익 역시 39조원으로 전년 대비 7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